



정읍시, 지역 농축협과 협력사업 발굴 나서

정읍시가 지역 농·축협과 손잡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78억원 규모의 2027년도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내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 관계자, 실무부서 담당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농축협 상생발전을 위한 지자체협력사업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축협별 지역특화품목 지정과 육성 방향 △2027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협의 △2028년도 협력사업 추진현황 점검 △농업정책 방향과 연계한 상생 발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각 농협이 강점을 가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중장기 육성 전략을 세우는 데 뜻을 모았다.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재배를 늘려 실질적인 농가 소득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2027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총사업비 78억 6000만원 규모의 52개 사업을 제안했다. 이어 농업부서의 타당성 설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묻고 답하며 추진 방향을 명확히 다듬었다. /정읍=김태환 기자



긴בל레, 김제 6·25 참전유공자에 625만원 기탁

김제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인기 유튜버 긴בל레(Longleg)와 함께 6·25 참전유공자를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한다. 시는 지난 26일 구독자 37.5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긴בל레와 협업해 관내 6·25 참전유공자 10명에게 총 625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공동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긴בל레가 평소 김제시 SNS를 관심 있게 지켜 보던 중 김제시에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성사됐다. 특히 김제시가 추진한 3·1절 미원 웰린지를 비롯해 시민 참여형 콘텐츠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소통 방식에 공감하며 후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긴בל레는 평소 한계에 도전하는 콘텐츠와 기부를 결합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온 크리에이터다. 서울~부산 52km 종주, DMZ 완주, 국가보훈부 협업 러닝 웰린지 등을 통해 총 3.5톤의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나눔 활동에는 김제 지역 기업인 인생 쌀집(대표 안훈민)도 함께하며 선한 영향력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기탁 금액인 625만원은 6월 25일을 의미하는 숫자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뜻을 담았다. 긴בל레가 30일 동안 다양한 일터를 직접 체험하며 마련한 수익금과 시청자 후원금, 그리고 본인의 사비를 더해 조성했다. /오만호 기자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김제시는 지난 26일 김제국민체육센터에서 시민의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기초시설 종사자들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제8회 환경기초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사 5개 업체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김제시청장학재단에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한마음대회에서는 축구, 볼링, 탁구, 단체줄넘기 등 다양한 체육경기와 이벤트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제=곽태기 기자

'회송, 치료의 끝 아닌 협진의 시작'

전북대병원, '회송 알림데이' 개최... 환자·보호자 500여명 참여

전북대학교병원은 회송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의료진담체계 확립을 위해 2026 회송 알림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진료협력센터 주관으로 본관 1층 진료협력센터 앞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회송! 편리하게, 안전하게'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거주지 인근 협력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연계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회송 제도를 알리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진 체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들은 특히 회송을 '치료의 중단이 아닌'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안전한 협진 시스템'으로 소개하며, 협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행사장에는 회송 제도의 정의와 절차, 장점을 소개하는 '회송 홍보존'을 비롯해 초성·OX 퀴즈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퀴즈존', 의료진의 응원 메시지를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한 '회송 응원 메시지존' 등이 운영됐다. 이날 행사에는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특히 의료진이 회송 환자들에게 전하는 응원 문구를 담은 '회송 응원 메시지존'에 큰 관심을 보이며 회송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병원장은 "회송은 치료의 중단이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과의 안전하고 유기적인 협진 체계"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회송 제도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환자 중심의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동시에 회송 활성화를 통해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선진 의료진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병원 고명한 교수, 병원 발전기금 기탁

전북대학교병원은 재활의학과 고명한 교수가 병원 발전기금 의학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탁식은 병원 본관 3층 온고홀에서 양종철 병원장과 이상록 대외협력홍보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병원은 발전기금 기탁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기탁된 발전기금은 고 교수의 뜻에 따라 재활의학과 의료 연구, 교육환경 개선 등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농협파트너스 전북, 마을회관 냉난방기 세척 지원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부안농협, 군산온누리농협, 김제농협과 함께 도내 37개 마을회관의 냉난방기 10대를 대상으로 전문 분해세척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필터 청소가 아닌 냉난방기 주요 부품 분해세척과 냉각팬(열교환기) 고압세척까지 포함한 전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협파트너스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농협 계통조직과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종합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농협 맞춤형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담안선교회, '존 하워드와 교정선교포럼' 전주서 성료

전북지역 교정선교 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도민들을 위한 교정선교 포럼이 전주에서 열렸다. 담안선교회(대표 정성호 목사)는 지난 26일 오후 7시, 전주 중무교회에서 '존 하워드와 교정선교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식 소말교도소장이 강사로 나서 교정선교의 방향과 사역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의 사회개혁가이자 교도소 개혁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존 하워드의 정신을 조명하며, 현대 교정선교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안선교회 정성호 목사는 "교정선교 수용자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교정선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교회와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담안선교회가 주관하며, 전주교도소 기독교 교정위원회와 전북 극동방송이 협력했다. /오만호 기자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어요'

전주교도소, 마약예방 캠페인 전개

전주교도소가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마약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26일 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과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도소 직원들은 방문 민원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마약 예방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마약의 폐해와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세계 마약퇴치의 날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오만호 기자



특히 마약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예방에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생활 속 마약 예방 실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오만호 기자

남원시 주천면, '건강체크 백세만세' 사업 순조

남원시 주천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노환순)가 올해 초 시작한 '건강체크 백세만세' 사업이 6개월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은 지난 1월 회덕마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관내 18개 마을 총 16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협안·협당 축적, 복약 및 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경로단까지 직접 찾아와 건강을 꼼꼼히 챙겨주니 관심이 된다"며 감사를 전했으며, 면에서는 방문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남원=김기우 기자



장계농협, 찾아가는 법률상담 봉사단 운영

장계농협(조합장 곽정웅)은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농업인 법률상담봉사단'과 함께 농업인 법률 고충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해 희망하는 우리농협 조합원(10여명)에게 1:1 무료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법률상담봉사단이 본격적으로 찾아가 현장활동에 돌입 1:1 맞춤형 무료법률상담, 농업관련 특화 법률지원, 생활 법률 지원 등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경찰, 부안서해로타리클럽과 '맞손'

부안경찰서(서장 조성근)는 지난 25일 경찰서장실에서 부안서해로타리클럽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 강화와 경찰 협력체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민간 봉사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임실 노인회, 지회장배 어르신 바둑·장기대회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지회장 이강년)는 지난 28일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전통 놀이문화 계승·발전 위한 제12회 지회장배 어르신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 임실군수 당선인 한득수, 임실군의외장 장종민, 전북특별자치도외원 박정규 및 각급 기관 단체장, 노인회 임원, 선수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들의 지적 기능을 겨루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결과, 바둑부문 1위는 임실읍분회, 2위는 성수면분회, 3위는 덕치면분회, 장려상은 지사면분회가 차지했으며, 장기부문 1위는 관촌면분회, 2위는 오수면분회, 3위가 삼계면분회, 장려상은 지사면분회가 차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키르기스스탄 등 2개국 새마을지도자, 교육 수료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김평림)는 지난 26일 경기 성남시 중앙회에서 2026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초청 새마을교육 수료식을 개최하고, 양국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현지화를 지원하고, 각국의 지역개발을 이끌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료식에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참가한 연수생 30명을 비롯해 최형재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연수생들을 격려했다. 연수생들은 지난 17일부터 9박 10일 동안 새마을운동의 철학과 추진 전략, 액션플랜 수립, 국가별 성공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개발 역량을 키웠다. 또한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새마을운동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 모델을 학습했다. /오만호 기자